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은막의 스타들 컴백 잇따라

관록 있는 여배우들의 스크린 복귀가 최근 잇따라 눈길을 끈다. 1960~1980년대에 맹활약했던 여배우들이 제2의 배우 인생을 시작 한 것이다. 1960년대를 대표했던 여배우 윤정희(66)는 올해 이상동 감독의 신작 '시'로 복귀한다. 스크린 복귀는 만무방(1994) 이후 16년 만이다. 윤정희는 문화, 남정임과 함께 1960년대 '트로이카'를 형성했던 은막의 스타다. 윤정희는 이 영화에서 생활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며 외산자를 기르는 60대 중반의 미자역을 맡았다. 윤정희는 "마음은 항상 여기(영화)에 있었기 때문에 조영나 카메라에 거부감도 없다. 딱히 힘든 것도 없고 그저 옛날 친구를 만나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1980년대의 스타 이보희(51)도 신인 백동훈 감독이 연출한 '식객:김치전쟁'으로 지난 달 복귀했다. 영화 'A+삼'(1998) 이후 12년 만이다. 1983년 '과부춤'으로 데뷔한 이보희는 '무릎과 무릎사이'(1984), '어우동'(1985) 등 주로 이상호 감독의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명성을 얻은 배우다. 이보희는 최근 '식객:김치전쟁'의 시사회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개무량하다. 이 자리가 꼭 신인이었을 때 썼던 무대 같다. 앞으로 영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애(59)는 '영어완전정복'(2003) 이후 6년 만인 지난해 '애자'(정기훈 감독)로 스크린에 복귀했다. 이 영화에서 불치병에 걸려 죽는 엄마 역할을 한 그는 대중상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영화 '백야행'(2009·박신우 감독)에서 주인공 요한(고수)의 어머니 역을 맡은 차화연(50)도 '먼 여행 긴 터널'(1986) 이후 23년 만에 영화로 돌아왔다. /연필뉴스

'12년의 기다림-연아의 올림픽'

SBS, 오늘 밤 11시 김연아 다큐 방영



SBS는 24일과 26일 진행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앞두고 김연아 선수를 다룬 다큐멘터리 '12년의 기다림-연아의 올림픽'을 23일 밤 11시부터 1시간동안 방송한다. 22일 밝혔다.

배철수가 내레이션을 맡은 이 다큐멘터리는 김연아가 12년 전 나가노 올림픽을 보고 처음 올림픽을 꿈꿨던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비롯해 김연아의 톨모델로 알려진 미국 미של 칸 선수와의 인터뷰, 라이벌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와의 프로그램 비교 분석 등을 담았다.

또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김연아가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느끼는 부담은 없는지 직접 인터뷰를 통해 그의 심정을 들여본다.

김연아는 24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에 밴쿠버 피서 픽콜리세움에서 열리는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2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한다. /연필뉴스

전국체전 일반부 광주대표 선발전. 첫머간 방향. 결승 5보 (61~74). Go board diagram showing a Go game position with numbered stones and a '참고도' (reference board) below.

EBS and EBS플러스1, 2 program schedule table. Lists various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programs with their broadcast tim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How would you like to pay? (English to Korean), 2. 残念(ざんねん)ですね (Japanese to Korean), 3. 弄丸 (Chinese to Korean), 4. 從容有常 (중용유상) (Chinese to Korean). Includes dialogues and vocabulary.